

투데이 칼럼

북한의 기후변화 대응

해마다 큰 홍수와 가뭄에 시달리고 있는 북한 역시 기후변화 문제에선 예외가 아닙니다. 김정은 위원장 집권 뒤 기후변화에 관해선 나름 중장기적이고 구체적인 대안들을 내놓긴 했습니다. 그래도 북한은 여전히 이상기후 대응 취약국이란 게 국제 평가입니다. 제27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각국의 정상과 정부 대표들이 기후변화와 관련한 문제들을 논의했습니다.

북한 대표로는 미동희 이집트 주재 대사가 참석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처럼 북한도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 매년 참여하고 있다. 북한의 최고인민회의는 2005년 교토의정서와 2015년 파리기후변화협정도 비준했다.

2016년엔 리수용 당시 외무상이 직접 뉴욕을 방문해 파리기후변화협정문 원문에 서명했다. 이 같은 행보엔 북한 나름의 강력한 의지가 담겨 있다.

북한이 기후변화 문제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건, 대규모 자연재해가 이어진 1990년대부터다. '100만 민의 대홍수'라는 1995년의 수해가 작적 단이었다.

자연재해는 김정은 위원장 집권 뒤 더 빈번하다. 2016년, 태풍 라이언훅이 함경북도를 쓸대밭으로 만들었다. 추수를 앞둔 농작물들도 흔적

조차 없이 사라졌다. 태풍 바비, 마이삭, 하이선 이 연달아 들이닥친 2020년, 김 위원장은 피해 지역을 찾았다. 대규모 자연재해로 인적, 물적 피해가 되풀이하자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크게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경제난이 심각하다 보니 역설적으로 탄소 배출 축소 부담은 크지 않다. 대신 산림 복구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과, 재생에너지 확대에 집중하고 있다. 이를 위해 2013년부터 2042년까지의 '산림건설총계획'을 수립했고, 현재 진행하고 있다. 해마다 수백만 그루를 심고, 산불 예방과 해충구제, 벌목 방지를 위한 단속을 벌이고 있다고 전한다. 노력의 성과도 나타나고 있다. 2008년부터 2018년까지 산림 황폐 면적이 22만 헥타르가량 감소했다. 하지만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로 공든 탑은



정복규 논설위원

쉽게 무너져 내렸다. 대북제재로 인해서 LPG 수입이 급지됐다. 그러면서 2018년 이후부터는 북한 주민들 사이에서 나무와 화석연료를 때는 비율이 훨씬 높아진 것이다. 석탄과 나무를 사용하는 비율이 다시 증가하면서 산림 훼손이 나타나고 있다. 태양에너지와 풍력, 지열 등 재생에너지 개발과 이용 독려도 중요한 기후변화 대응 방안이다. 공장은 물론, 가정집 지붕에서도 쉽게 발견할 수 있는 태양광 패널은 전기 생산뿐 아니라 난방, 온수에도 적합하다. 문제는 재생에너지 시설을 대중화할 재정적 뒷받침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즉각적인 기후변화에 대응해야 하는 기후 적응 사업도 비슷한 상황이다. 한반도에서 함께 살 수밖에 없는 남북이 지금의 대결을 뛰어넘어 기후위기 돌파에 힘을 모아야 할 때이다. 한편, 조선중앙TV는 수해 발생

시 재난방송 체제로 전환하는 등 신속성을 높이기도 했다. 우리 기상청에 해당하는 기상수문국은 자체 관측 장치와 휴대전화 앱을 내세워 빠르고 정확한 예보를 강조한다. 그러나 이 역시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되지 않는다. 북한은 저수지와 하천 정비 그리고 제방 등이 열악한 상태다. 기상정보를 아무리 빠르게 알려줘도 대비할 수 있는 규모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결국 국제사회, 특히 우리와의 협력이 불가피하다. 산림 협력이나 기상정보 교환, 공유하천의 수해 대응 등은 과거에도 논의했던 만큼 언제든지 협의가 가능한 사항이다. 남북이 한반도라는 권역으로 묶여 있는 만큼 우리도 기후변화를 신안보 차원에서 보고 북한과의 공동 대응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 동서독의 경우 기본합의체결 이후에 첫 번째 합의한 것이 바로 환경 분야였다. 기후변화라는 큰 틀에 묶어서 좀 더 상위의 이행 기구를 만들어서 대응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기후변화는 미래 후손들이 아닌 지금 당장 우리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 한반도에서 함께 살 수밖에 없는 남북이 지금의 대결을 뛰어넘어 기후위기 돌파에 힘을 모아야 할 때이다.

사설

6년만의 국정조사 전망

국정농단 사건 이후 6년 만에 열리는 국정조사가 타결됐다. 진격 합의한 배경은 먼저 현실론이다. 이영당 18명이 요구서를 냈다. 국민의힘이 반대해도 야권 단독 국정조사가 가능한 것이다. 이런 현실적 문제 앞에서 계획을 바꿀 수밖에 없었다. 끝내 거부하더라도 명분이 있으면 되는데, 각종 여론조사에서 응답자 70% 정도가 정부 책임을 지목하는 상황이다. 예산 처리와 연계해 출구를 찾아야 하는 것 아니냐는 타협론이 나왔던 것도 바로 이런 이유에서였다. 내년 예산안 처리가 급한 여당으로서 여소야대 상황에서 어려움이 예상됐다. 민주당도 예산안 처리가 늦어지면 국정 발목잡기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오히려 국정조사 실시 여론을 등에 업고 예산 협상의 속도를 높이는 압박 수단으로 활용한다는 전략이다. 야권이 요구한 조사 대상은

경호처와 법무부가 빠졌다. 참사 원인 중 하나가 용산 대통령실 이전과 마약 단속에 따른 경비 인력 집중 때문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대통령실은 물론 한동훈 법무부까지 끌어들이는 정쟁에 활용할 거라며 반대했다. 단독 실시에 부담을 느낀 야권이 이를 수용한 걸로 해석된다. 다만 야권은 국정상황실과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조사를 통해 이 내용을 추궁하겠다고 버리고 있다. 아무래도 국정조사는 수사권이 없다보니 '빙판' 비판도 나온다. 야당은 수사나 사생활을 이유로 출석이나 진술을 거부하면 안 된다는 결합의서에 넣치고 했다. 여당은 국정조사법에 이 부분이 금지돼 있다며 불기하다고 반대했다. 그래서 결국 국정조사 계획서에 이런 내용을 담기로 했다. 여야가 국조 실시에는 합의했지만, 자료 제출부터 정문회, 기간 연장 문제까지 앞으로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전북취업지원센터와 고용센터 협약

최근 고용노동부 전주고용센터와 대한노인회 전북취업지원센터 간의 지역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안정을 위한 업무 협약식이 열려 관심을 모았다. 협약식은 지난 15일 대한노인회 전북연합회 2층 회의실에서 있었다. 협약식에는 전주고용센터 측에서 정영화 고용노동부 전주 고용노동지청 전주고용센터 소장, 고정수 취업지원총괄팀장, 박종광 주무관이 참석했다. 대한노인회 전북연합회 전북취업지원센터에서는 김창수 센터장과 한지선 실장이 참석했다. 두 기관은 앞으로 지역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안정에 탄력을 기하는 등 노인일자리 창출에 공동 노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한편 이에 앞서 대한노인회 전북취업지원센터는 지난 8월 25일 전주수퍼마켓협동조합과도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전주수퍼마켓협동조합 이사장실에서 열린 협약식은 지역 노인 세대의 소득 증대와 사회 참여를 지원하는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자리였다. 김창수 센터장은 "일하기를 희망하는 어르신과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알선하고, 취업에 성공해 근로와 사회 참여의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업무 협약을 통해 어려움을 겪는 지역 내 어르신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하는 일이 중요하다. 특히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업무 협약 기관들은 계속해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할 것이다. 우선 업무 협약 체결을 시작으로 꾸준한 지역 노인을 채용할 계획을 세워야 할 것이다. 조합 물류센터 내 판매 관리 보조 업무를 담당하도록 할 것도 추진해야 한다. 업무 협약을 계기로 전북 지역에서 새로운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안전 관련 협업에 성과가 있기를 기대한다.

사외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사진으로 보는 지구촌 소식

뉴욕 시내 떠다니는 미니언 풍선



추수감사절인 지난 24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메이시스 백화점이 마련한 추수감사절 퍼레이드가 열려 미니언 스투어트 풍선이 떠다니고 있다. 올해 96회를 맞은 이 퍼레이드는 메이시스 백화점이 추수감사절을 이용해 판촉 행사로 시작한 것이 미국 추수감사절 대표 행사로 자리 잡았다.

아르헨 민중화 상징 '보나피나' 별세... 향년 93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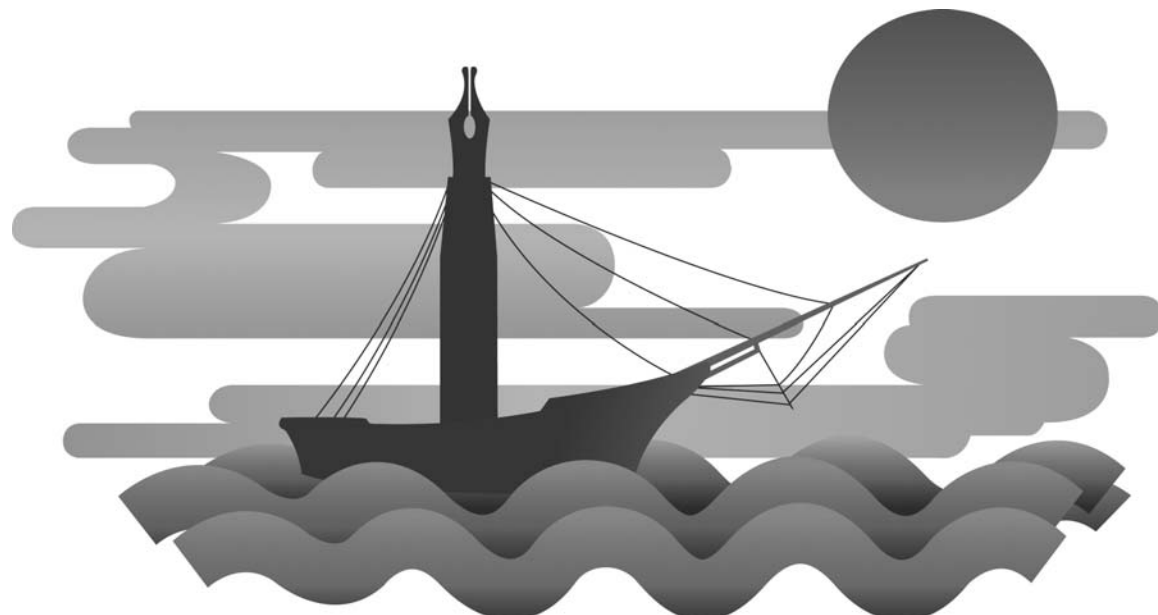
지난 24일(현지시간)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의 5월 광장에서 한 여성이 5월 광장 어머니회 설립자인 에베 데 보나피나의 사진을 휴대전화로 찍고 있다. 아르헨티나 민중화의 상징인 에베 데 보나피나는 지난 20일 향년 93세의 나이로 별세했다. 세 이들의 어머니였던 보나피나는 1977년 군사 정권에 두 아들을 잃은 후 비슷한 처지의 어머니들과 5월 광장 어머니회'를 설립해 민주화·인권 운동을 이끌었다.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형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어려움을 속 시원하게 풀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인간중심 · 도덕중심 · 지역중심

전주매일